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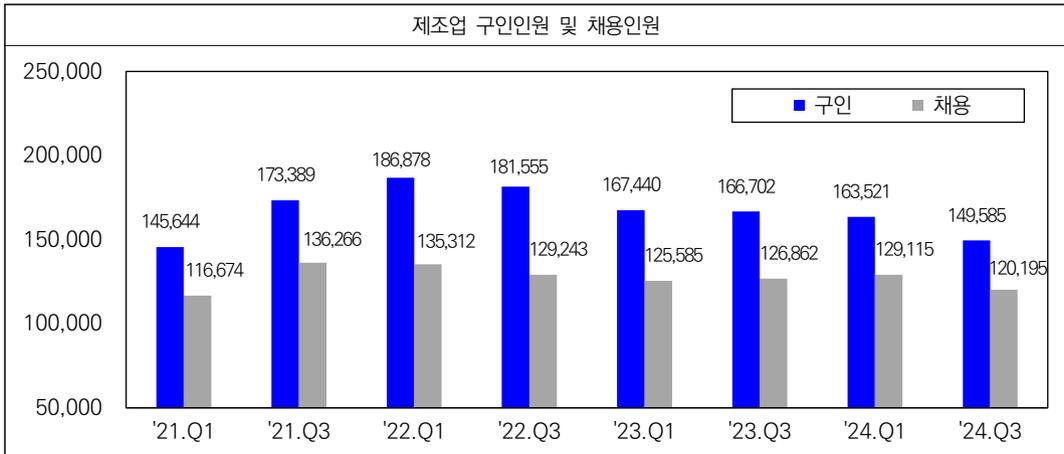
# 최근 지역별 제조업 구인 동향

○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제조업의 구인 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함.

- 2024년 3분기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체의 구인인원<sup>1)2)</sup>은 149,58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117명 감소했으며. 채용인원은 120,195명으로 6,667명 감소함.
- 구인과 채용인원의 차이인 미충원인원은 구인인원 감소로 전년보다 10,450명 감소함.
- 제조업 구인인원은 2023년 1분기 이후로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제조업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추이

(단위 : 명)



주 : 1) 내국인 기준.

2)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각 연도.

1) 내국인 기준.

2) 구인인원 :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1. 1.~3. 31./7. 1.~9. 30.) 사이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예 :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문 등에 채용광고, 고용센터에 구인요청,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 등)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으로서 채용인원을 위해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

채용인원 :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1. 1.~3. 31./7. 1.~9. 30.) 사이에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

-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구인인원도 2023년 이후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남.
  - 제조업 구인인원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함.
  - 경기, 충남, 경북 지역 구인인원이 2024년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3,586명, 4,944명, 3,407명 감소하여 제조업 구인인원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
  - 제조업 현원(종사자 수) 대비 구인인원 비율도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이로, 2024년 3분기에는 특히 충북, 경북 지역의 구인인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충북지역 구인인원은 2024년 3분기에 1,832명 감소했으며, 현원 대비 구인인원 비율은 2022년 6.7%에서 2023년 5.4%로, 2024년에는 4.5%로 감소함.
  - 경북지역 구인인원은 3,408명 감소했으며, 구인인원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4.6%임. 경남지역의 구인인원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5%를 기록함.

〈표 1〉 지역별 제조업 구인 및 채용

(단위: 명, %)

지역	구인인원 수(명)				구인인원 비율(%)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3분기	(증감)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3분기
서울	9,291	8,945	10,132	(1,187)	5.0	5.0	5.9
부산	6,901	7,238	6,215	(-1,023)	4.1	4.3	3.8
대구	7,742	6,562	6,238	(-324)	5.8	4.9	4.8
인천	8,676	8,488	8,308	(-180)	4.0	4.0	4.0
광주	3,257	2,645	2,535	(-110)	4.3	3.5	3.5
대전	3,210	2,507	2,556	(49)	5.5	4.3	4.5
울산	4,937	5,306	4,900	(-406)	3.0	3.3	3.1
세종	1,206	1,081	1,268	(187)	6.1	5.1	5.8
경기	58,834	50,632	47,046	(-3,586)	5.1	4.4	4.2
강원	4,351	4,119	3,675	(-444)	7.9	7.6	6.9
충북	13,807	10,999	9,167	(-1,832)	6.7	5.4	4.5
충남	13,603	18,096	13,152	(-4,944)	4.9	6.4	4.8
전북	5,585	5,051	4,836	(-215)	5.3	4.9	4.7
전남	6,123	5,053	4,285	(-768)	5.7	4.7	4.2
경북	17,554	16,065	12,657	(-3,408)	6.3	5.7	4.6
경남	15,962	13,551	12,340	(-1,211)	4.6	3.8	3.5
제주	517	363	273	(-90)	5.7	3.9	3.0
전체	181,555	166,702	149,585	(-17,117)	5.1	4.7	4.3

주: 1)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2) 구인인원 비율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조사기준일이 1, 3분기, 현원 조사기준일이 4월 1일, 10월 1일임을 고려하여 구인인원 비율=구인인원/(현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으로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각 연도.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은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임.
  - 지역내총생산(R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가장 높고, 충남(48.6%), 충북(44.0%), 경북(38.9%), 경기(36.9%), 경남(35.1%), 전남(26.7%) 순으로 높음(그림 2 참조).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은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sup>3)</sup>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음. 각 지역 제조업 생산에서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지역이 약 57%, 충북과 충남, 경북 지역도 40% 이상임.
  - 경남은 제조업 생산의 약 50%를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sup>4)</sup>이, 전남은 제조업 생산의 약 59.2%를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이 차지함.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은 수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전체 수출에서 각 지역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지역 23.6%, 충남 13.5%이며, 경남, 전남, 경북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그림 2 참조).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은 전자·전기제품<sup>5)</sup> 수출 비중이 큼(표 2 참조).
  - 경기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고 컴퓨터, 전력용 기기 등 산업 및 가정용 전자제품·전기기기, 자동차, 기계류 수출 비중도 높음.
  - 충북은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이, 충남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전기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경북은 반도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자·전기기기 제품 중 무선통신기기 품목 비중이 높고, 철강과 화학공업 제품 수출 비중도 높은 편임.
  - 경남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선박 수출 비중이 높고, 전남은 광물성 연료(경유, 제트유 및 등유 등),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선박 수출 비중이 높음.
  
- 제조업 종사자는 지역내생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분포함(표 3 참조).
  -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전자제품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고, 경남은 기계 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남은 식료품,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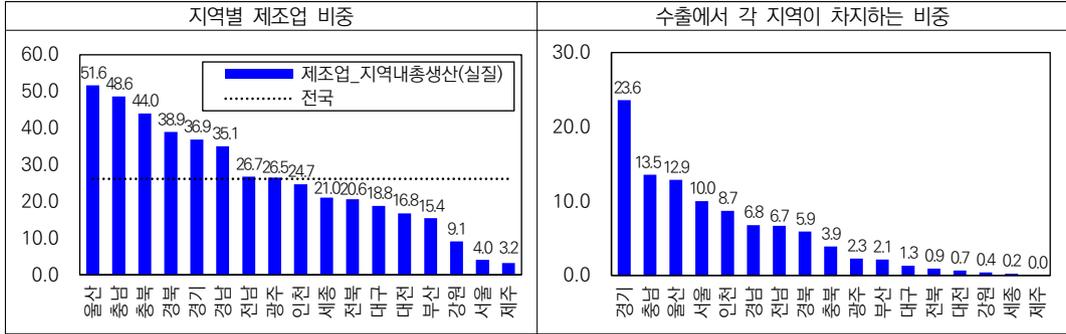
3)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을 포함함.

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포함함.

5) 전자부품과 산업 및 가정용 전자제품·전기기기.

[그림 2] 각 지역의 경제구조

(단위 : %)



주: 1) 지역별 제조업 비중은 2023년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실질) 기준.  
 2) 수출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수출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표 2] 각 지역의 품목별 수출 비중(2024년 기준)

(단위 : %)

업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자부품	43.7	53.6	58.4	12.9	2.8	0.1
- 반도체	36.7	43.6	46.2	4.0	0.8	-
- 건전지 및 축전지	0.6	7.5	0.8	1.7	-	-
- 디스플레이	3.7	-	10.9	4.2	-	-
산업 및 가정용 전자제품·전기기기	11.6	6.7	9.9	29.0	7.8	-
- 무선통신기기	1.6	-	-	24.7	-	-
수송기계	15.8	2.1	2.1	4.4	43.0	11.8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5.7	2.0	2.1	4.2	12.9	0.5
- 선박	-	-	-	-	24.9	11.4
기계류	13.3	8.6	3.9	6.8	20.7	-
석유화학제품	1.0	1.5	7.4	2.2	-	28.1
화학공업제품	5.2	12.4	3.4	10.2	1.9	3.8
철강제품	1.2	1.2	0.9	17.6	5.6	20.2
광물성연료	-	-	9.3	-	-	32.1
- 석유제품	-	-	3.9	-	-	1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수출액 3억 달러 미만(지역 내 비중도 0.5%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 표시함.  
 2) 산업 및 가정용 전자제품, 전기기기는 산업용전자제품(MTI81), 가정용전자제품(MTI82), 전기기기(MTI84), 기계류는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 등을, 화학공업제품은 정밀화학(MTI22), 요업제품(MTI24),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MTI25), 기타화학공업제품(MTI29) 등을,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MTI 133) 등을 포함함.  
 3) 반도체는 MTI831, 건전지 및 축전지는 MTI835, 디스플레이는 MTI836, 무선통신기기는 MTI812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MTI741+MTI742, 선박은 MTI7461임.  
 4) 지자체 수출입 통계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우편번호 기준임.  
 자료: 무역협회, 「지자체수출입」.

〈표 3〉 각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

(단위 : %)

업 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식품 제조업	6.9	15.5	10.6	8.3	7.0	1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0	7.2	6.8	4.8	1.8	1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9	8.0	7.2	6.2	7.3	4.6
1차 금속 제조업	2.5	2.4	7.3	8.6	4.7	9.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8	8.4	7.3	10.4	15.6	9.4
전자제품 제조업	15.5	11.1	10.6	13.0	2.2	0.6
- 반도체 제조업	7.8	6.2	3.5	2.1	0.1	0.2
- 전자부품 제조업	5.4	4.1	6.7	4.6	1.7	0.2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6	0.4	0.3	5.9	0.2	0.2
전기장비 제조업	6.9	11.3	6.5	6.2	6.7	4.2
- 전동기·발전기·전기 변환 장치	3.6	3.9	2.3	2.1	2.7	2.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0.3	5.5	2.3	1.8	0.6	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5	7.2	12.2	9.5	17.6	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0	6.5	14.6	11.6	9.8	0.9
- 자동차 부품 제조업	3.9	5.9	12.6	11.2	8.5	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	0.4	0.3	0.9	15.7	13.7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0.0	0.0	0.0	0.7	11.0	13.5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23년 기준 각 지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임.

2) 전자제품제조업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은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간 생산 및 수출 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반도체가 주력 품목인 경기, 충북, 충남은 반도체 수출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 화학공업제품, 철강제품 등에서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구인인원이 감소함.
- 특히, 충북지역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품목 간 수출 증감률에 차이가 컸음. 반도체 외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은 감소했고, 이차전지의 원료인 정밀화학연료를 중심으로 화학공업 제품 수출도 큰 폭 감소했음. 충북지역 제조업 구인인원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에서 감소했음.
- 경북지역은 구인인원 감소 대부분이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에서 나타남. 2024년 중 주력업종인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전자제품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경남과 전남은 선박에서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좋았음에도 철강 관련 제품과 기계류에서의 생산 및 수출 감소로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종과 제조단순직에서 구인인원이 감소했음.

〈표 4〉 각 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2024년 기준)

(단위 : %, 전년대비)

업 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식품품 제조업	2.4	0.2	2.1	0.9	2.4	7.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10.0	0.5	-6.6	-2.0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5.2	8.8	-2.0	4.6	1.5
1차 금속 제조업	-2.2	-3.2	-3.5	-3.5	-7.0	-0.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5.7	-4.8	-7.4	16.1	14.6	-2.3
전자제품 제조업	32.8	-5.5	8.2	8.5	6.0	-
전기장비 제조업	-10.9	-38.5	-31.9	-12.6	3.0	4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	-11.8	1.8	-15.2	-6.1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3.8	-7.2	2.4	3.9	-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5	47.4	-1.5	20.4	47.5
제조업	17.9	-6.0	-0.1	1.0	4.4	2.8

주 : 전자제품제조업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표 5〉 각 지역의 품목별 수출 증감률(2024년 기준)

(단위 : %,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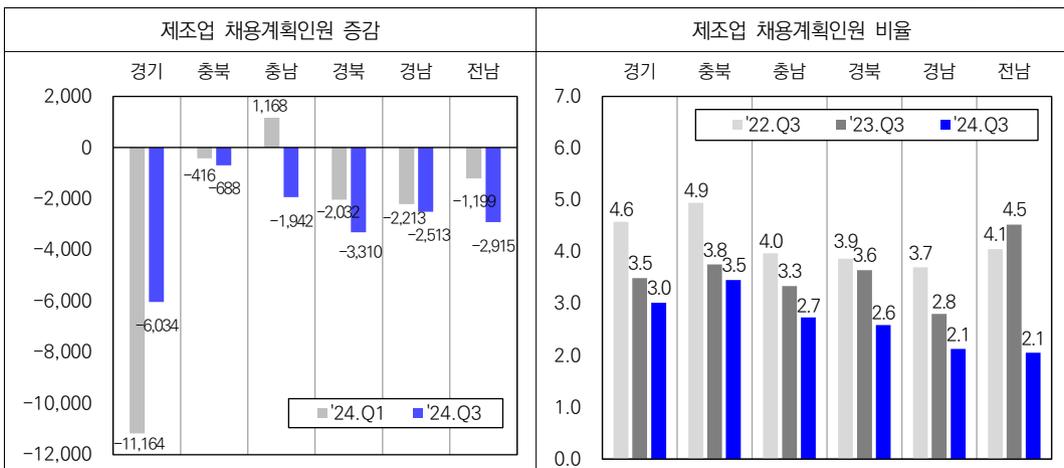
업 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반도체	77.0	46.3	33.5	3.1	4.4	-
건전지 및 축전지	-20.4	-21.8	-55.1	16.2	-	-
디스플레이	23.6	-	-9.3	-4.9	-	-
산업 및 가정용 전자제품, 전기기기	17.3	-32.2	61.8	10.0	2.5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2	4.0	5.3	4.6	12.3	-
선박	-	-	-	-	30.3	58.3
기계류	10.2	-12.2	0.9	-11.6	-2.0	-
석유화학제품	4.0	3.6	4.9	1.9	-	-2.8
화학공업제품	6.2	-48.2	-11.0	-25.8	5.4	-11.7
철강제품	-5.0	-15.4	4.8	-0.9	-17.9	-4.7
광물성연료	-	-	8.9	-	-	-5.8
석유제품	-	-	8.9	-	-	-5.8
전 체	24.4	-4.2	16.6	-1.8	10.6	0.3

주· 자료 : 〈표 2〉와 동일.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의 제조업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도 감소하였음.
  - 현재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 및 구인활동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인원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모두 감소함.
  - 향후 6개월 사이에 해당 사업체에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을 의미하는 채용계획인원 역시 해당 지역에서 모두 감소함.

[그림 3] 각 지역의 제조업 채용계획인원(내국인 기준)

(단위: 명, %)



주: 채용계획인원은 4월 1일, 10월 1일이 조사기준일이며 채용계획인원 비율=채용계획인원/(현원+채용계획인원)\*100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각 연도.

- 제조업 구인인원 감소는 워크넷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sup>6)</sup>
  - 워크넷 자료에서 제조업 구인인원은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1.6%, 32.7% 감소했음.
  -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의 구인인원 감소 규모가 큰 편으로, 2024년 4분기 경기지역 구인인원은 전년동기대비 32.4% 감소했고,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도 모두 30% 이상 감소하였음.
  - 2025년 1월에는 제조업 구인인원이 전년동월보다 약 5만 명 감소(55.6% 감소)했는데, 워크

6)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구인경로는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자치단체 등) 및 공공직업 정보사이트(워크넷, 자치단체 일자리 포털 등), 민간 취업 알선기관 및 민간 직업정보사이트, 대중매체, 학교·학원 등의 추천, 친척·친구·동료 등 지인 소개, 자사 홈페이지 등을 포함하므로 고용행정통계의 워크넷 자료보다 구인경로 범위가 넓음.

- 넷 구인인원 자료가 존재하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임.
- 제조업 구인인원 감소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제조업 구인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KLI**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